

# Strategy Idea



▲ **주식시황**  
 Analyst **정다이**  
 02. 6098-6692  
 daijeong@meritz.co.kr

## 미운오리새끼 KOSDAQ, 더 날아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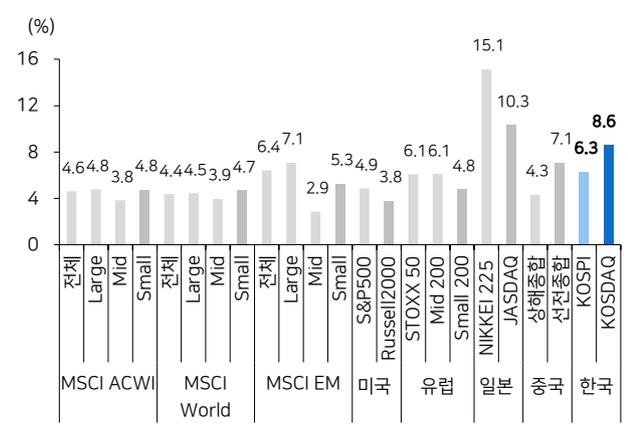
- ✓ 글로벌 증시 동반 강세 속 소외되었던 KOSDAQ, 9월 말 이후 확연한 상승추세 보여
- ✓ KOSDAQ 소외 현상 유발했던 3요인(실적 부진, 수급 소외, 투자심리 위축) 해결 중
- ✓ 실적 모멘텀 강화, 정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12월 발표 예정)이 추가 상승 뒷받침할 것

KOSDAQ 시장 하반기 8.6% 상승  
 KOSPI +2.3%p 아웃퍼폼

글로벌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한국 증시의 경우 3분기 북한 리스크, 실적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도 했으나 수출실적 호조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3분기 실적발표가 진행되며 9월 말 이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 이후 한국 증시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KOSPI 대비 KOSDAQ 지수의 상대강도가 개선되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KOSDAQ 지수는 10월 6.3%, 11월 2.1% 상승했는데 동기간 KOSPI 지수를 0.9%p, 1.0%p 아웃 퍼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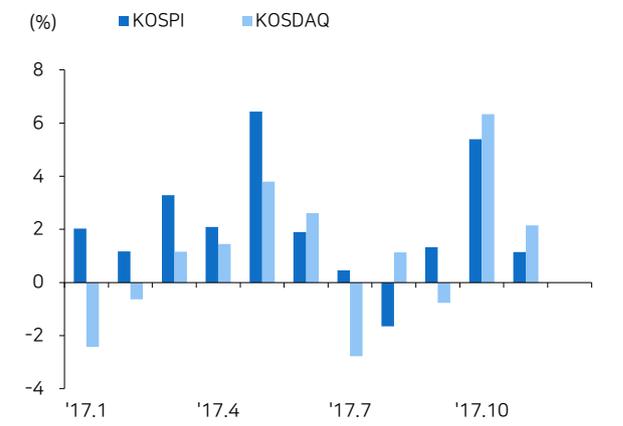
상반기 KOSDAQ 시장은 글로벌 강세장 속 미운오리새끼였다. 사드 관련 한중관계 악화로 중국 경제성장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경기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ETF 및 패시브 펀드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수급적 환경 역시 KOSDAQ 시장 소외현상을 강화시켰던 요인이었다. 4분기 들어 KOSDAQ 시장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던 요인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

그림1 2017년 하반기 글로벌 증시 누적 수익률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2017년 월별 KOSPI, KOSDAQ 누적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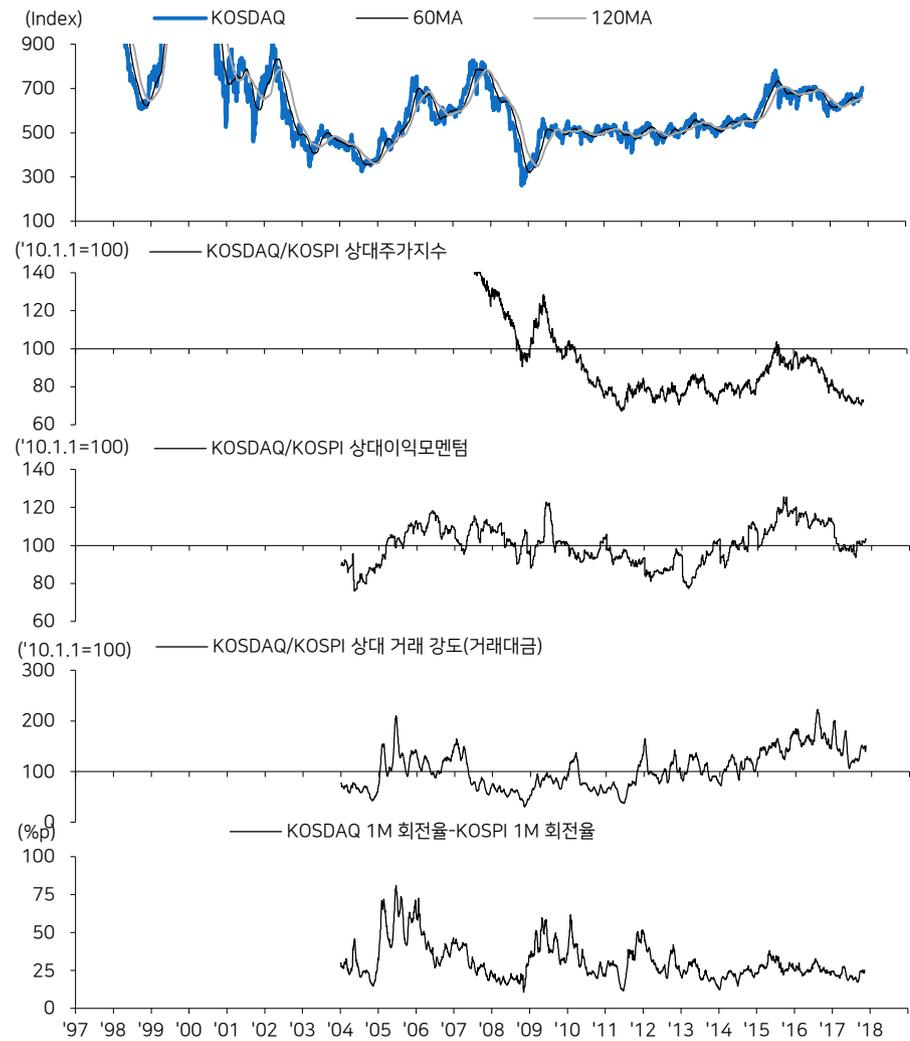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상대강도 개선을 위한  
세가지 퍼즐

KOSDAQ 지수와 KOSPI 지수의 상대강도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때 눈여겨 보는 지표는 크게 세가지다. 상대 이익모멘텀, 상대 거래대금, 상대 회전율이다.

10월 이후 세가지 지표 모두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다. 1) 기업 실적 개선세 KOSDAQ 시장으로 확산 2) 2018년 신정부 정책 모멘텀, 3) 시장낙관론 지속은 KOSDAQ 의 상대강도 개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요인이다.

그림3 주요 금융시장 지표 추이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3분기 실적 발표 결과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

11/8일 기준 KOSDAQ 기업 151개의 실적발표가 완료되었다. 151개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7.8조원, 11.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51.9% 증가했다. 이 중 컨센서스가 있는 49개 기업(KOSDAQ 시가총액의 23%) 중 43.5%의 기업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시장 예상치를 4.8%, 9.1% 상회했다.

KOSDAQ 이익률 개선폭  
KOSPI 대비 커,  
특히 대기업 매출의존도 높은  
자유소비재, 정부기술 업종의  
상대 이익률 상승 전환 했다는  
점에서 이익개선 지속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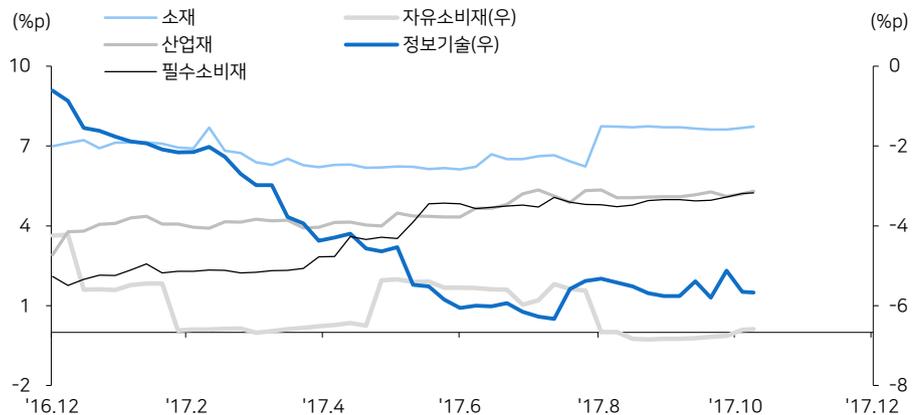
3분기 실적시즌 이후 KOSDAQ150 업종지수의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KOSPI200 업종지수 대비 상대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매출액 중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정보기술, 자유소비재 업종에서 상대 이익률이 개선되고 있어 이익성장이 밸류체인 아랫단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보인다.

표1 KOSDAQ 3분기 실적 발표 현황

	시가총액 (11/7) (조원)	발표 기업 수	서프라이즈 기업수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				
					발표(A)	예상(B)	(A/B-1)	QoQ%	YoY%	발표(A)	예상(B)	(A/B-1)	QoQ%	YoY%
반도체	3.8	8	3	38%	481	485	-0.7%	-10%	57.6%	84.30	89.59	-5.9%	-29.0%	136.1%
디스플레이	4.8	4	3	75%	685	642	6.8%	4.7%	24.6%	98.60	86.87	13.5%	14.7%	62.3%
IT하드웨어	4.2	8	4	50%	934	953	-2.0%	38.6%	42.1%	116.60	97.21	19.9%	344.0%	422.4%
소프트웨어	3.3	5	1	20%	346	363	-4.8%	8.8%	31.5%	88.50	93.04	-4.9%	23.4%	18.2%
호텔,레저서비스	2.5	2	1	50%	269	265	1.4%	29.7%	12.3%	18.30	10.39	76.1%	흑전	-49.8%
화장품,의류,완구	0.7	2	1	50%	89	100	-11%	-9.5%	13.5%	16.50	17.97	-8.2%	-5.7%	27.6%
미디어,교육	4.0	2	1	50%	470	456	2.9%	2.8%	19.2%	20.40	24.89	-18%	-37.5%	15.1%
소매(유통)	2.8	3	2	67%	1,032	789	30.7%	-6.4%	11.5%	83.50	61.80	35.1%	-15.8%	6.0%
필수소비재	0.5	1	1	100%	662	660	0.3%	4.3%	9.2%	14.90	12.61	18.2%	6.3%	64.1%
건강관리	24.5	7	1	14%	470	478	-1.8%	-4.8%	19.5%	193.90	177.51	9.2%	-6.6%	24.0%
건설,건축관련	0.5	1	1	100%	203	198	2.8%	3.9%	16.9%	24.50	23.97	2.2%	-12.7%	-7.1%
상사,자본재	0.1	1	1	100%	16	17	-4.3%	-16%	29.2%	2.30	2.20	4.5%	-16.4%	47.4%
기계	0.8	2	2	100%	159	142	11.9%	12.3%	20.3%	28.00	21.90	27.9%	12.9%	33.5%
화학	1.4	2	1	50%	119	107	11.2%	26.8%	42.7%	26.60	23.98	10.9%	32.5%	88.8%
비철,목재등	1.7	1	0	0%	307	303	1.4%	4.5%	9.0%	26.20	28.88	-9.3%	-3.0%	40.0%
합산	55.6	49	23	47%	6,241	5,957	4.8%	5.5%	22.5%	843.10	772.81	9.1%	11.5%	43.7%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4 KOSDAQ150- KOSPI200 업종별 영업이익률(컨센서스 12m 선행)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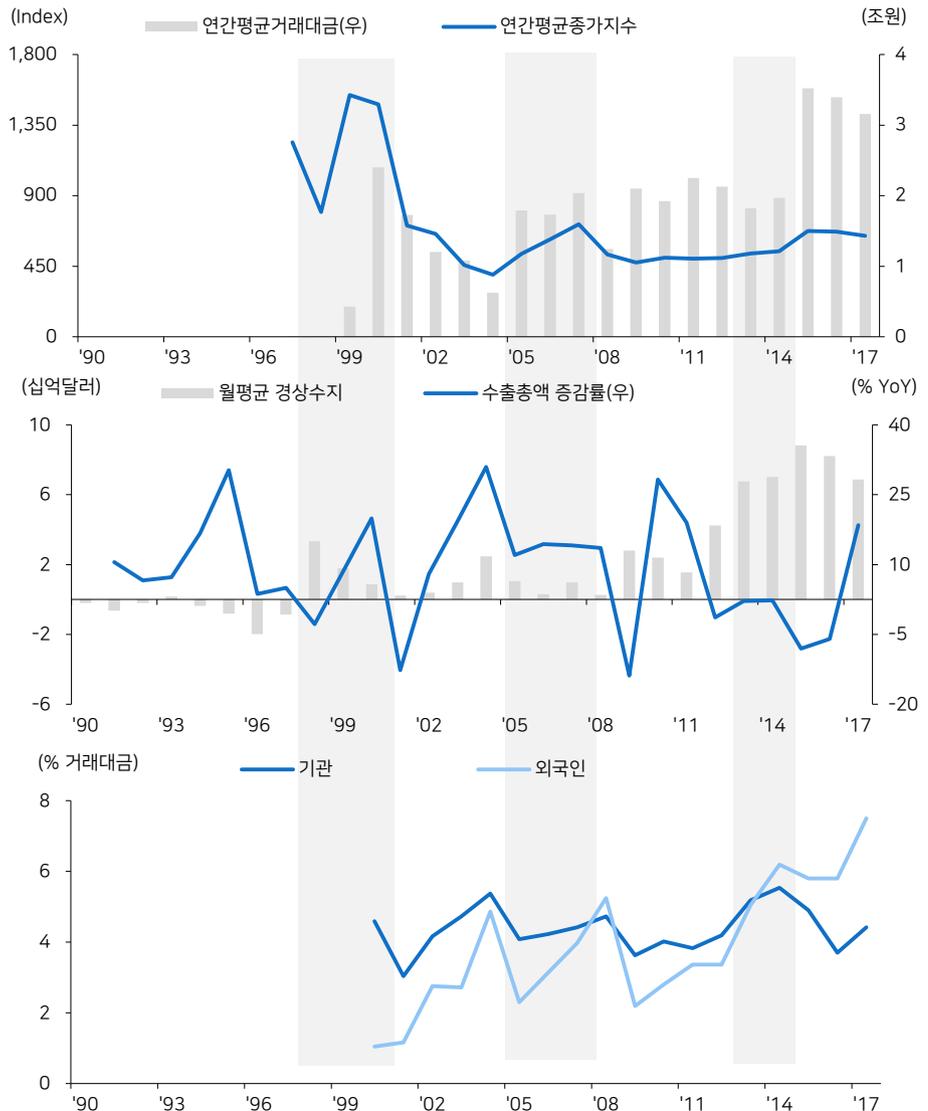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과거 코스닥 시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국내 요인의 변화

과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 되었던 시기는 1999~2000년, 2004~2006년, 2014~2015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KOSDAQ 시장 부양책이 실시되었다는 점과 새로운 수급주체가 시장에 유입된 것이 계기가 되어 거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수출 회복이 국내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KOSDAQ 시장에서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KOSDAQ 시장이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주식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6년 7월 1일개설되었다.

그림5 KOSDAQ 지수(연평균), 한국 경상수지, KOSDAQ 시장 기관 및 외국인 거래비중(연간)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은 위험자산 투자 활성화 > 기업 자금조달 환경 개선> 투자수익률 극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은 1) 혁신-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2) 기술특례 상장요건 도입 등 상장요건 약화 3) 보호예수 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 유인을 높이는 정책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 11월 2일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특히 신정부는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을 '혁신 창업 활성화'에 두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금 회수 시장인 KOSDAQ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올 12월 중 'KOSDAQ 시장 중심의 자본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코스닥 등 회수 시장의 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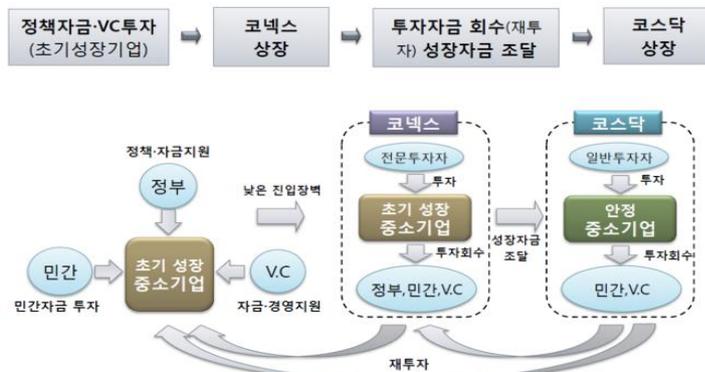
정부는 1) KOSPI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진입규제와 관행을 정비하는 것, 2) 연기금의 KOSDAQ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키 위해 벤치마크 지수 및 기금운용 평가안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림6 역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시기	발표 시기	내용
1차	1999	- 등록기업 세제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 IT벤처기업 육성정책
2차	2005	- 인수합병 규제 완화해 우회상장으로 코스닥 진입하는 기업 증가 -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장한 배경
3차	2013	- 거래소 구조 개혁을 통한 시장 활성화 대책, 기업 자금조달 제보 방안과 중소기업청 강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과 맥락 같이함 - 중소, 벤처사 상장요건 대폭 완화. 기술평가 상장특례 전면 재조정(자기자본 요건 15억 -> 10억, 자본잠식 없어야 한다는 요건 삭제키로, 특례상장 해당 판단하는 사전절차 폐지, 기업 계속성, 경영투명성 등 평가하는 질적 심사 간소화) - 코스닥 보호예수 기간 6개월로 축소

자료: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KOSDAQ,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연결고리**



자료: KRX(2013),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주식시장 관련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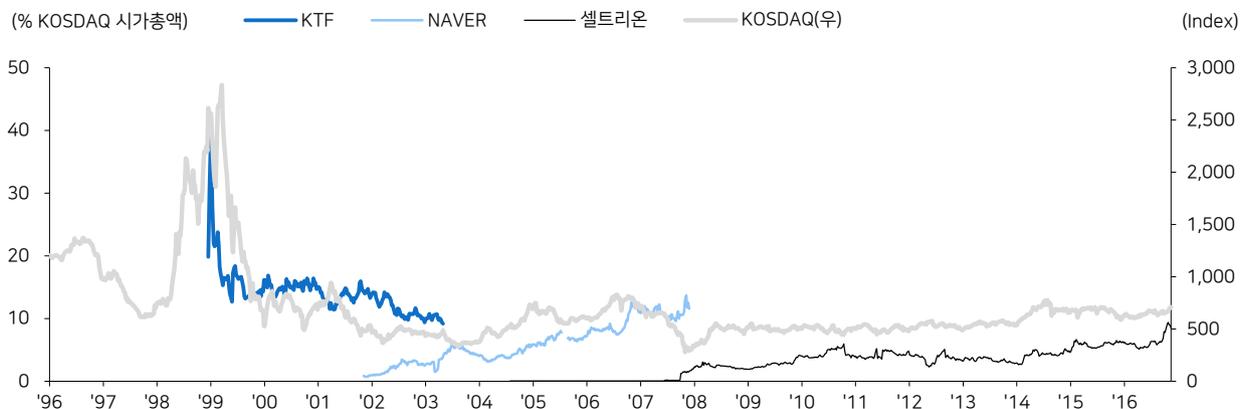
우리사주, 스톡옵션에 세제혜택 부여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10년만에 도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
코스닥 등 회수시장 경쟁력 제고	코스닥 위원회 독립성강화, 유가증권시장(KOSPI)와 경쟁 촉진
	성장잠재력 높은 혁신기업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관행 재정비 : 테슬라 적용실적 있는 주관사에 대해 풋백옵션(공모 참여 일반 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 보장)완화하는 방안
	기업 지배구조, 경영투명성,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질적 상장심사 및 공시 확대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R&D 비용에 최대 40%(현 30%)까지 세액 공제
연기금 및 대형 IB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 유도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현 KOSPI200) 통해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예시: 10%) 확대 유도
	연기금 투자폭이 코스닥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배점(현 5점/총 100점) 확대 검토. 우수시 평가 가점 부여
	초대형 IB 신규업무 인가, 자본규제 정비를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
M&A 참여 유도	대기업 등 M&A 참여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3년→7년) 연장 중견, 대기업 등의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현 인수합병대가 50% 초과분 현금지급 -> 삭제

자료: 중소기업청,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정부의 12월 KOSDAQ 시장 활성화 정책 도입에 앞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성장잠재력인 혁신기업이 새로운 KOSDAQ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민, 국민연금의 인덱스 변경이 자산운용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다.

하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의 진입은 KOSDAQ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 1999년, 2005년의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당시 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1위 업종이 변화했는데 공통점은 새롭게 탄생한 시장의 선두주자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기업이라는 점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의 산업육성책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그림9 KOSDAQ 부양 정책 도입기 KOSDAQ 내 주도주 시가총액 비중**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표2 연도별 업종별(산업분류) 시가총액 비중: 주도주의 부상과 관련**

1998		1999		2000				
Top3	54.7	Top3	67.8	Top3	45.0			
Top10	74.5	Top10	86.3	Top10	68.7			
Top30	91.9	Top30	96.5	Top30	88.6			
은행/저축기관	23.2	기업은행	전기통신	56.8	KTF 등	전기통신	30.0	KTF 등
선박/보트건조	16.8	현대중공업	소프트웨어	6.0		기타 금융	8.9	
전기통신	14.7	SK브로드밴드	통신/방송장비	5.0		통신/방송장비	6.1	
2001		2002		2003				
Top3	39.4	Top3	36.6	Top3	37.6			
Top10	69.0	Top10	67.6	Top10	64.0			
Top30	89.3	Top30	88.7	Top30	87.2			
전기통신	24.9	KTF 등	전기통신	22.7	KTF 등	전기통신	20.9	KTF 등
기타 금융	8.4		유원지/오락	7.3		전자부품	8.7	
소프트웨어	6.1		기타 금융	6.6		소프트웨어	8.0	
2004		2005		2006				
Top3	28.7	Top3	23.3	Top3	24.9			
Top10	60.1	Top10	56.6	Top10	53.8			
Top30	84.2	Top30	82.3	Top30	81.9			
전기통신	11.4	SK브로드밴드	전자부품	8.4	자료처리/호스팅	9.9	NAVER 등	
전자부품	10.4		자료처리/호스팅	7.9	전기통신	8.4		
특수목적기계	6.8		소프트웨어	7.0	소프트웨어	6.6		
2007		2008		2009				
Top3	26.8	Top3	17.2	Top3	21.0			
Top10	54.4	Top10	45.2	Top10	47.7			
Top30	82.8	Top30	78.4	Top30	81.3			
자료처리/호스팅	14.2	NAVER 등	전자부품	6.4	전자부품	8.0		
전기통신	7.1		기타 금속가공	5.6	반도체	6.5		
전자부품	5.5		특수목적기계	5.2	소프트웨어	6.5		
2010		2011		2012				
Top3	23.0	Top3	23.3	Top3	23.8			
Top10	51.6	Top10	50.1	Top10	52.0			
Top30	80.2	Top30	82.4	Top30	80.7			
전자부품	8.5	소프트웨어	8.8	안랩 등	전자부품	8.8		
특수목적기계	8.0	특수목적기계	8.2		소프트웨어	8.4		
소프트웨어	6.5	전자부품	6.3		기초 의학	6.7		
2013		2014		2015				
Top3	21.3	Top3	22.5	Top3	25.2			
Top10	49.5	Top10	49.9	Top10	50.9			
Top30	80.0	Top30	78.5	Top30	78.0			
전자부품	7.6	소프트웨어	9.7	컴투스, 웹젠 등	기초 의학	10.7	셀트리온 등	
소프트웨어	7.3	특수목적기계	6.9		소프트웨어	8.2		
특수목적기계	6.5	전자부품	5.9		특수목적기계	6.3		
2016		2017						
Top3	26.2	Top3	29.9					
Top10	51.8	Top10	57.0					
Top30	78.6	Top30	82.2					
기초 의학	11.1	셀트리온 등	기초 의학	14.9	셀트리온 등			
특수목적기계	8.4		특수목적기계	8.1				
소프트웨어	6.7		소프트웨어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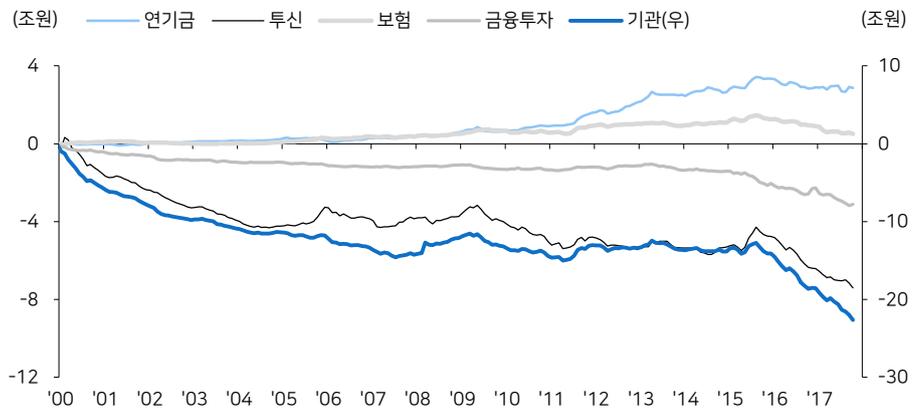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둘,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략 변화는 국내 증시 수급요건을 좌우할 수 있다.

<2004년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국내주식 투자비중 '04년 말 8.9% → 10.7%>과 <2014년 국민연금 중기 자산배분 계획: '12년 18.8% → '18년까지 20% 이상, 당시 홍완선 본부장 '해외투자, 대체투자, 중소형주 투자비중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언>, <'15년 6월 중소형주 벤치마크 복제율 가이드라인 제시>가 대표적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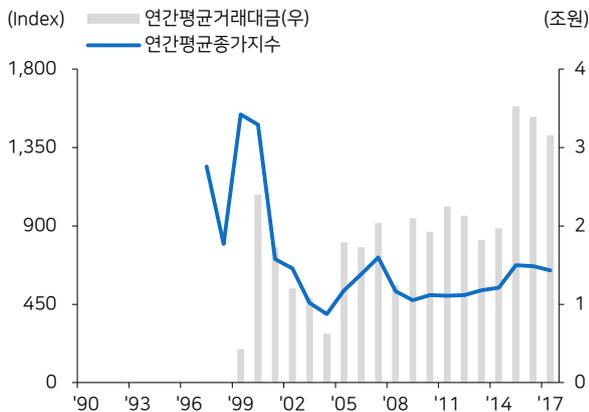
2004년과 2014년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 전략 변화는 연기금의 국내 주식 시장 영향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내 기관투자자의 증시 영향력이 커졌던 시기기도 하다. 반면, '15년 6월 중소형주 벤치마크 복제율 가이드라인 제시는 KOSDAQ 시장의 투자심리를 크게 약화시켰다.

그림10 KOSDAQ 기관투자자 유형별 누적 순매수 추이(2000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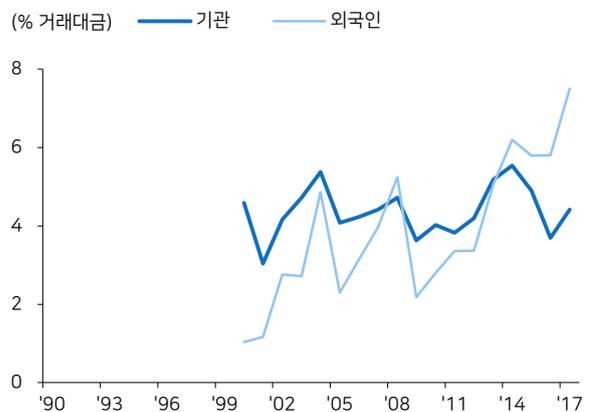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11 KOSDAQ 지수와 거래대금 추이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그림12 KOSDAQ 거래대금 내 기관, 외국인 투자자 비중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리서치센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포함된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 확대 정책은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정부가 목표 비중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예시에서 제시한 10%의 비중을 적용해 예상 투자 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다.

'20년 국내 주식내 KOSDAQ 투자비중이 10%까지 확대된다면 국민연금의 KOSDAQ 투자금액은 16.9조원으로 예상된다. 2013년 장기재정추계로 추산된 '20년 적립금(847.2조원)에 근거해 추산한 결과다. 국민연금의 '17.6월말 기준 코스닥 투자 금액인 3.2조원의 5배 수준이다.

지난 10월 26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종목 투자를 늘리도록 하기 위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을 균형있게 반영하는 신규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사례로 든 것이 일본이 도입한 'JPX닛케이400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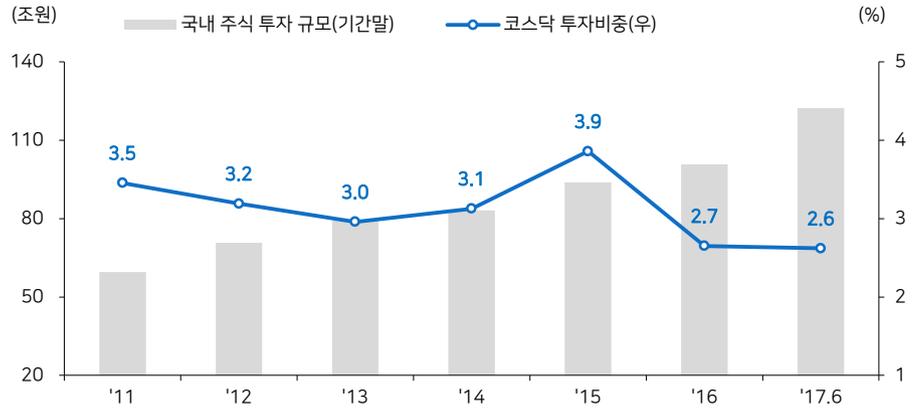
JPX닛케이400지수는 도쿄거래소와 JASDAQ 상장 구분 없이 상장 기업을 선정 하며, 시가총액 뿐만 아니라 ROE 등 재무 정보를 함께 고려한 질적 인덱스다. 한국판 JPX닛케이400지수가 도입될 경우 유동성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것은 KOSDAQ 대형주다. 유동성 조건(거래량),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첫번째 스크리닝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림1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주식시장 관련 내용 요약**

연기금 및 대형 IB 코스닥 시장 투자 확대 유도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현 KOSPI200) 통해 '18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 코스닥 투자비중(예시: 10%) 확대 유도
	연기금 투자금이 코스닥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 평가배점(현 5점/총 100점) 확대 검토. 우수시 평가 가점 부여
	초대형 IB 신규업무 인가, 자본규제 정비를 통해 벤처투자 등 기업금융 활성화

자료: 중소기업청,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국민연금 연도별 국내 주식 투자 규모와 코스닥 투자비중**



자료: 국민연금,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종목수	400	
종목 선정 방식	상장 후 3년 미만 종목 제외.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 초과하는 종목 제외 최근 3년간 거래량과 기준일 시가총액이 상위 1000위 내에 드는 종목 질적, 양적 요인 Scoring해 전체 점수 결정, 상위 400개 종목 선정	
	[Quantitative Scoring] 3년 평균 ROE (40%) 3년 누적 영업이익(40%) 시가총액(20%)	[Qualitative Scoring] 독립적 사외이사 임명 IFR 도입여부 영문 이익정보 포함
산출방식	유통시가총액 가중(1.5% capped) 지수 산정종목 산출일 : 6월 마지막 영업일 구성종목 리뷰일: 8월 마지막 영업일 유통시가총액 가중 비율 산정.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기준일	2013년 8월 30일(10,000pt)	

자료: TSE,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미운오리새끼 KOSDAQ 더 날아올 수 있다!

KOSDAQ은 글로벌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되었던 시장 중 하나다. 경기 회복이 장기화되며 이익개선세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 정부 정책은 KOSDAQ 시장의 투자심리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기관 주도의 KOSDAQ 상승을 유도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기관 유동성 유입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KOSDAQ 대형주와 혁신성장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주(5세대 이동통신망,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표3 글로벌 주요 주가지수와 현 주가수준 분석

지역	지수	종가 (11/7)	증가 vs. 52주 신고가 (%)	52주 신고가 (11/7)	52주 신고가 달성일	52주 신고가 달성 종목/ 구성 종목(%)	증가 vs. 20년 신고가 (%)	20년 신고가 (11/7)	20년 신고가 달성일*
MSCI ACWI	MSCI ACWI	500	-0.3%	501	'17.11.7	11.0	-0.3%	501	'17.11.7
	Large	1,235	-0.1%	1,236	'17.11.6		-0.1%	1,236	'17.11.6
	Mid	1,305	-0.4%	1,310	'17.11.6		-0.4%	1,310	'17.11.6
	Small	1,532	-0.8%	1,544	'17.11.1		-0.8%	1,544	'17.11.1
MSCI DM	MSCI World	2,047	-0.3%	2,052	'17.11.1	13.5	-0.3%	2,052	'17.11.1
	Large	1,254	-0.1%	1,255	'17.11.6		-0.1%	1,255	'17.11.6
	Mid	1,337	-0.3%	1,342	'17.11.5		-0.3%	1,342	'17.11.5
	Small	406	-0.5%	409	'17.11.6		-0.5%	409	'17.11.6
MSCI EM	MSCI EM	1,135	-0.4%	1,139	'17.11.7	6.1	-15.2%	1,338	'07.10.29
	Large	1,150	0.2%	1,148	'17.11.1		-13.8%	1,333	'07.10.29
	Mid	1,014	-1.6%	1,031	'17.10.16		-21.0%	1,284	'07.10.31
	Small	1,138	-0.6%	1,145	'17.11.2		-6.8%	1,221	'07.10.31
미국	S&P500	2,591	-0.2%	2,597	'17.11.7	10.5	-0.2%	2,597	'17.11.7
	Russel2000	1,479	-2.4%	1,515	'17.10.5	5.4	-2.4%	1,515	'17.10.5
유럽	STOXX 50	3,659	-1.3%	3,709	'17.11.1	12.0	-33.0%	5,464	'00.3.6
	Mid 200	480	-1.0%	485	'17.11.1	9.0	-1.0%	485	'17.11.1
	Small 200	296	-1.0%	299	'17.11.1	5.0	-1.0%	299	'17.11.1
일본	NIKKEI 225	22,857	-0.4%	22,953	'17.11.7	28.9	-0.4%	22,953	'17.11.7
	JASDAQ	165	-0.6%	166	'17.11.6	NA	-0.6%	166	'17.11.6
중국	상해종합지수	3,414	-0.2%	3,421	'17.10.26	3.8	-44.0%	6,092	'07.10.16
	선전종합지수	2,013	-6.1%	2,144	'16.11.23	4.3	-35.9%	3,141	'15.6.12
한국	KOSPI	2,544	-0.7%	2,562	'17.11.2	1.4	-0.7%	2,562	'17.11.2
	KOSDAQ	702	-0.4%	705	'17.11.7	NA	-75.2%	2,834	'99.12.14

주: 11/7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중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9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정다미) 동 자료는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 2장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